

구문문법을 활용한 신어 분석 방안 연구

김종희(성균관대, 박사과정)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 2.1. 구문의 정의와 유형
 - 2.2. 구문의 생성과 변화
 - 2.3. 한국어의 구문문법 연구
3. 어휘 구문의 생성과 발달
4. 절과 구의 구문화
5. 결론

1. 서론

본고는 구문문법의 어휘적 미세-구문 생성 이론과 단어 이상의 구문 생성 이론을 통해서 최근의 신어와 언어 현상을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신어의 두드러진 특징은 기존의 단어 형성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단어들이 있다.

- (1) 가. 깔끼빠빠(깔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덜눔될 안될안(덜 높은 되고 안 될 높은 안 된다), 안물안궁(안 물어봤고, 안 궁금해)
 - 나. 먹방(먹는 방송), 눅방(누워서 하는 방송), 쿡방(cook, 요리 방송)
 - 다. 알못(알지도 못하는), 잘알(잘 아는), 단짠(달고 짠), 맵짠(맵고 짠)

(1)의 단어들은 공통적으로 단어 이상의 단위가 줄어드는 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단어들이다. (1가)은 일종의 두음절어의 예시로, 문장인 본말로부터 단어의 첫음절을 따서 만들어진 신어이다. (1나)은 한자어 ‘방송’의 ‘방’이 동사 어간 또는 독립적인 단어와 결합하는 방식으로 형성된 단어인데, 본래는 통사적인 구성이었던 것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비통사적인 결합 방식을 보이고 있다. (1다)은 동사 어간뿐만 아니라 부사, 형용사의 어간이 결합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신어들의 구조를 설명하고 그 형성 원리를 밝히려는 작업은 계속해서 시도되어 왔고, 그로 인해 규칙 밖의 존재처럼 여겨졌던 신어의 조어 원리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는 규명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어와 관련된 논의는 아직까지는 그 결과물이 ‘단어’의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나타나는 언어 현상 중에는 여러 단어로 된 구나 문장 자체가 고정된 형태로 활발하게 쓰이는 현상이 있다. 이런 구나 문장 자체가 하나의 고정된 틀처럼 사용되기도 하고, 음운의 대치 및 재분석을 거치며 다른 형식으로 변형되기도 하

며, 때로는 (1)의 사례처럼 줄어들어 약어를 형성하기도 한다. 즉, 약어가 만들어지는 배경 중에는 특정한 구문의 반복된 사용이 있다는 것이다. 특징적인 구문의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2) ㄱ. 추워서 롱패딩 못 잃어.

ㄴ. 출근 두 시간 됐는데 벌써 낡고 지쳤어.

(2)의 예문은 통사적, 의미적 제약을 어기고 있는 최근의 언어 사용을 보여준다. (2ㄱ)의 ‘잃다’는 본래 부사 ‘못’에 의해 부정을 받을 수가 없지만, ‘못 잃다’라는 구성이 인기를 널리 얻으면서 제한된 환경 하에서 ‘못 잃어’와 같이 쓰이기 시작했다. (2ㄴ)의 ‘낡다’는 본래 사람에게 사용될 수 없는 단어였지만, ‘낡고 지치다’라는 형태를 중심으로 사람의 상태를 묘사하는데 쓰일 수 있게 되었다.¹⁾

(2)와 같이 통사적, 의미적 제약을 지키지 않는 구문의 경우 그 특이한 사용이 쉽게 눈길을 끈다. 그러나 그 구문이 축약되어 신어를 형성하든, 단어 이상의 단위로 정착되든, 통사적 제약을 지키든 지키지 않든, 사용 빈도가 높은 특정 구문이 유행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구문들이 결과적으로 신어의 산실이 되고, 언어 변화를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음료의 이름이었던 ‘라떼(Latte)’에 ‘옛 경험담을 늘어놓는 행위’라는 새로운 의미가 부과된 것은 자신의 옛 경험담을 늘어놓는 말버릇 ‘나 때는 말이야…’가 특정 드라마의 등장인물에 의해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그것이 인기를 끌어 ‘나 때는 말이야’라는 구문 자체가 활발하게 사용된 것이 원인이 되었다. 여기에서 ‘나때’가 음상이 비슷한 ‘라떼’로 변화되고 축약되면서 ‘라떼’만 남게 된 것이다. ‘나 때는 말이야’가 ‘라떼’가 되는 현상은 축약 혹은 재분석이라는 이름으로 분석이 되어 왔지만 ‘나 때는 말이야’라는 원어에 대한 주목은 따로 없었던 듯싶다.

이는 ‘나 때는 말이야’와 같은 단위를 도대체 무엇으로 파악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다. 전통적으로 단어 이상의 단위를 다루는 것은 형태론, 또는 어휘론의 영역이 아닌 것으로 취급이 되어 왔다. 특히 국어학에서는 체언의 굴절을 인전하지 않고 어미에 의한 용언의 굴절이 통사론의 영역에서 다루어지면서 형태론의 범위가 단어 형성법을 중심으로 머물게 되는 결과를 낳은 바 있다. 체계상의 합리성과 이점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형태부와 통사부를 엄격히 구분하는 문법 체계는 최근의 언어 현상을 기술하는 데에 적절하지 않다.

본고에서는 신어와, 신어를 생성하는 구문을 다룰 수 있는 문법 이론으로 ‘구문문법’을 채택하여 신어의 예시들을 설명할 것이다. 구문문법에서는 기존 생성문법의 전통과는 달리 형태론과 통사론 사이의 구분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 2장에서는 구문문법의 이론적 바탕과 국어학에서의 구문문법 연구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3장과 4장에서는 구문문법을 바탕으로 하여 언어 단위들을 설명해 볼 것이다. 구문의 크기에 따라 3장에서는 어휘 구문의 생성에 대하여, 4장에서는 절과 구 단위의 구문 생성에 대하여 논하도록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구문의 정의와 유형

‘구문(construction)’이라는 개념 자체는 기존의 문법 기술에서도 드물지 않게 사용된 개념

1) ‘낡다’가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간혹 사람과 결합하기도 하는데, 이 때의 ‘낡다’는 ‘사고방식이 시대에 뒤떨어지다’의 의미이지 ‘지치고 피곤하다’의 의미가 아니다.

이다. 생성문법에서도 능동구문, 피동구문 등의 용어들을 사용하여 한 구문이 어떻게 하여 다른 구문으로 변형되는지에 대하여 논하였고, 다양한 문법학자들이 기술 단위로서의 구문을 언급해 왔다. 즉 구문이란 굳이 정의하자면 단어 이상, 문장 이하의 문법 단위를 칭하는 용어였던 것이고, 사실상 문장 구조나 동사의 논항구조 등 특정한 문법적 형식을 가리키기 위해 임의로 사용되어 온 개념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때의 구문은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즉, 단어나 문장과 같이 관습적으로 형성된 의미가 있는) 단위가 아니었다. 구문을 구성하고 있는 다른 단위들과 문법규칙에 의해 구문의 의미는 규칙적으로 조합되는 것이었다.

언어 이론으로서의 구문 문법이 등장한 것은 1980년대 미국 버클리 대학의 언어학자들에 의해서이다. 이때의 ‘구문’은 기존의 형태소나 단어 등의 자리를 대체하는 문법 기술의 최소 단위로 명명된다. 즉 구문 문법에서 사용하는 ‘구문’은 언어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단위이다. 따라서 구문문법의 구문 개념은 구문을 구성하는 통사적인 제한에서 벗어나, 구문 자체를 관습적인 의미를 가지는 단위로 본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구문문법 내에서의 구문은 ‘언어 관습적으로 형식과 의미가 담화 기능으로 이루어진 짝’(Fillmore&Kay 1993)으로 정의된다. Goldberg(1995)에서는 구문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린 바 있다.

만약 C가 형식-의미의 쌍 $\langle F_i, S_i \rangle$ 이고, F_i 의 어떤 양상 혹은 S_i 의 어떤 양상이 C의 성분들은 물론 기존에 성립된 다른 구문들에 의해 엄밀히 예측될 수 없는 경우, C는 구문이다. (Goldberg 1999:4)(이수현 2007:326에서 재인용)

이 정의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 구문의 크기가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며, 둘째, 의미는 관습적이고, 셋째, 형식과 의미가 하나의 구문 안에 모두 들어 있다는 것이다. 이후 기호 기반 구문문법(Sag, Boas&Kay 2012), 인지구문문법(Goldberg 1995), 급진적 구문문법(Croft 2001)등의 이론이 세분되지만 ‘형식-의미의 짝’(Traugott&Trousdale 2013)으로서 구문을 정의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어의 구문문법 논의에서도 이와 동일하다. 정주리(2007)에서는 구문을 ‘문장 안의 단어와 독립적으로 스스로 의미를 가진 구조’로 정의하였다.

먼저 구문의 크기는 특별히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구문의 범위는 하나의 단어에서 단일한 문법 형태소에서 여러 단어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단위들, 관습적 표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또 구문의 ‘형식’은 단어일 수도 있고 단어의 연쇄일 수도 있으며 특정한 단어들이 결합할 수 있는 어떠한 열려 있는 틀일 수도 있다. 따라서 구문문법에서는 구문의 크기에 따라 어휘 구문과 문법적 구문이 나눌 수는 있지만 형태론과 통사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구문의 역할 역시 실질적인 어휘소에 가까운 것에서부터 문법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다만 구문은 그 구문의 도식성에 따라서 상, 하위 도식으로 나눌 수 있다. Traugott&Trousdale(2013)에서는 도식(schema)-하위도식(subschema)-미세구문(micro-construction)을 구문 단계의 최소 세트로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하나의 어휘 ‘may’는 미세구문으로서 ‘양상(model)’이라는 하위도식에 속하고, 양상은 또한 ‘조동사(auxiliary)’라는 도식에 속한 하위도식이라는 것이다. 이 예시에 따르면 단 하나의 어휘라도 구문이 될 수 있으며 이들을 모두 포함하는 문법적 범주 역시도 구문이 되는 것이다. 다만 본고에서는 어휘 크기의 구문과 절과 구 단위의 구문을 다루기는 할 것이나, 이들을 문법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도식이나 하위 도식 층위의 논지를 펼치지는 않을 것이므로 모두 미세 구문 단위의 논의가

될 것이다.

이러한 구문의 의미는 단순히 구문 안의 단어나 어휘 요소들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며 별도의 구문 의미가 존재하는데, 구문의 의미와 구문의 구성 성분의 의미는 합성적이고 투명할 수도 있고 전혀 비합성적일 수도 있으며 근본적으로 구문의 의미는 언어 사용자들의 의미·화용적 지식에 의해 결정된다. 즉 음운적,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영향이 위계 구분 없이 적용되며, 이러한 구문의 활용에 대한 지식이 화자들의 문법 지식이 된다.

2.2. 구문의 생성과 변화

구문문법에서 중요한 것은 구문들 사이의 상호 연결망과 구문 자체의 성장·소멸이다.

모든 구문은 다른 구문을 생성해 낼 수 있는 도식으로 기능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 구문문법의 전제라고 할 수 있다. 구문은 근본적으로 추상화된 범주적 자질, 즉 도식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각기 생산성을 가진다. 이때의 생산성이란 두 가지 의미로 정의된다. 첫째, 하나의 구문(도식)에 기대어 새로운 미세-구문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이다. 둘째, 그 도식 자체가 나타나는 유형 빈도와 출현 빈도를 말한다.

만일 구문의 도식성과 생산성을 어휘 차원의 미세-구문에 한정시켜 설명한다면, 기존에 ‘유추’라는 이름으로 설명해 왔던 현상과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초딩’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 ‘초딩’에 유추하여 ‘중딩’, ‘고딩’이 생겨나는 현상은 ‘초딩’이라는 어휘-크기의 미세구문이 도식으로 기능하여 ‘중딩’, ‘고딩’이라는 새로운 미세구문을 생성해 낸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차이점이 있다면 유추는 새로운 단어가 생성될 때마다 기존의 단어를 기반으로 하였음을 전제한다면, 구문문법에서는 ‘초딩’이라는 단어 자체가 ‘X딩’ 형태의 도식(법칙)이 되어 기능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X딩’ 형태의 도식이 활용될 때 X가 꼭 ‘초등학교’와 같은 층위의 단어여야 한다는 제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 번 생성된 구문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구문 변화라고 한다.

각각의 구문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할 수도 있고 소멸할 수도 있다. Traugott&Trousdale(2013)에서는 구문이 만들어지는 것을 구문화, 구문이 변화하는 것을 구문변화라고 정의하였는데, 구문화와 구문변화에는 모두 그것을 촉발시키는 맥락이 존재한다. 그 맥락은 생산성이 특별히 높은 구문일 수도 있고, 구문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화용적 관습일 수도 있다.

2.3. 한국어의 구문문법 연구

한국어에서 구문문법에 기반한 연구는 그렇게 많지 않다. 김진웅(2019)에서는 한국어 문법 연구에서 구문 개념이 사용된 양상을 정리하고 국내에서 구문문법을 수용한 연구들의 사례를 확인하였는데, 이 논문에 따르면 국내 구문문법 연구의 대다수가 용법 기반(usage-based)의 연구라고 설명하고 있다. 속어, 연어, 상투 표현 등 생성문법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정형 표현²⁾들을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구문문법의 틀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국내의 연구로는 정주리(2005), 정병철(2007), 전후민(2013), 정해권(2013) 등이 있다. 주격 중출문을 구문문법으로 연구하거나(안명철 2015), ‘가다’, ‘주다’ 등의 동사가 사용된 구문에 대한 연구(정주리 2005:2006), ‘커녕’(전후민 2013), ‘다가’(예선희 2015)와 같은 문법적 단위들이 어떻게 생

2) 김진웅(2019)의 용어로, ‘정형화된 표현’을 의미하며 ‘구성이 미리 결정되어 있는 단어나 여타 의미 요소들의 연속적이거나 비연속적인 배열’로 정의된다. 정형표현은 문법에 의해 생성/분석된다기보다는 그 표현 전체가 인출되는 특성을 가진다.

성되고 사용되는지를 다루기도 한다.

대개 일반적인 생성문법으로 설명하기 어려웠던 문장 구조 등을 설명하기 위하여 구문문법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동사의 논항과 관련된 동사 중심의 구문을 다루는 연구가 많다. 그러나 그 가짓수가 많지 않고 구문의 역할과 동사의 어휘 자체의 역할 중 무엇이 우선하느냐에 대한 입장이 상이하게 갈린다.

형태론 분야나 신어 형성과 관련된 구문문법적 접근은 더군다나 많지 않다. 이는 형태-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기존의 방법적 틀이 유효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형태론적 규칙에 의해 어근과 접사를 설정하고 그것들이 결합하는 방식으로서 단어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것에 아직까지 큰 무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신어에서는 그 범위를 넘어서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다. 접사처럼 쓰이지만 접사가 아닌 예들이나 그 단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런 단위들에 기존의 접사/어근이라는 틀이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조금 더 형태 변화를 설명하기에 유연한 이론적 배경으로서 ‘유추’ 또는 ‘문법화’, ‘동사 단위의 어휘화’ 등이 존재하기는 하였다. 이에 의해 접사와 접어, 어근과 관형어 등의 중간지점에 있는 단위는 ‘조사화하는 과정’, ‘접사화하는 과정 중’, ‘어미화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설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설명 방법 역시 어떤 전형적인 문법 단위의 특성에 부합하느냐의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가지게 되어, 개별 어휘에 대한 설명 내지는 다양한 단어 형성 기제를 설명하기에 유연한 이론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장에서는 최근 신어의 예시를 중심으로 어휘 크기의 구문화와 절과 구 크기의 구문화를 살펴볼 것이다.

3. 어휘 구문의 생성과 발달

이 장에서 말할 어휘적 구문화는 새로운 어휘 크기의 구문이 생성되는 것을 말한다. 모든 구문이 도식이라는 원칙을 고려할 때, 어휘의 생성은 곧 새로운 단어 형성법 패턴의 형성이기도 하다. 즉 어휘적 구문화는 그 결과에 따라 새로운 단어 하나가 생겨나는 것에서부터 그러한 단어들이 만들어지기 위한 도식 자체가 만들어지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먼저 신어를 만들어내는 도식 자체가 생산성을 얻는 사례를 살펴보자. 서론에서 예로 든 ‘두음절어’나 ‘약어’라는 단어 형성법은 최근에 들어 그 생산성이 높아진 도식에 속한다. 신어에서 보이는 약어의 특성을 연구한 노명희(2019)에서는 한자어에서 주로 나타나던 약어 형성의 원리가 어종 제약을 넘어 신어에서도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약어 형성’이라는 어휘적 도식이 확장되어 생산성을 획득한 사례라고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또한 ‘동사 어간+명사’와 같은 비통사적인 합성법은 본래 통사적인 합성법에 비해 생산성이 낮은 어휘 형성 도식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최근 신어에서는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먹방(먹는 방송), 먹튀(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치다, 이득만을 챙기다), 맴찢(마음이 찢어지다), 알못(알지도 못하는), 잘알(잘 아는)’과 같이 의존적인 동사 어간이 합성어의 구성 요소로 참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이 모두 준말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어간을 다른 요소와 직접 결합시키는 어휘 구문의 생산성이 증가했다고 할 수 있다. ‘단짠(달고 짠 음식), 맵짠(맵고 짠 음식)’과 같이 용언의 관형형끼리 합성된 신어도 나타난다. 이외에도 혼성어나 재분석에 의해 만들어진 단어 등 신어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어휘 생성 도식의 유형은 다양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어휘 구문의 생성과 발달, 확장, 감소에는 특별한 맥락이 요구된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 맥락은 각각의 사례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도식을 처음으로 발생시킨 특이한 어휘 구문’을 포착하는 것이다. 생산성이 높고 활발하게 쓰이는 어휘는 견인적인 역할을 하여 그 어휘가 속한 도식 전체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

극히 일반적인 단어형성 도식인 ‘명사+명사’ 유형이라도, 어떤 특정 명사가 단어 형성 구문의 일원으로서만 생산적으로 쓰이고 본래 명사로서의 쓰임이 점차 감소하게 된다면 파생적인 성격을 지닌 구문으로 발전해 나가게 된다. 즉 새로운 파생 구문이 등장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구문화의 단계에서는 초기에 나타나 높은 출현 빈도를 유지하는 미세-구문들의 존재가 중요하다. 이 때 미세-구문 내부에서는 각 성분의 어휘적인 의미가 탈색되는 한편 구문 자체의 생산성은 더 늘어난다. 즉, 구문에 참여할 수 있는 단위가 확장되는 것이다.

Traugott&Trousdale (2013)에서는 영어 접사 ‘-dom’, ‘-hood’ 등을 이러한 예시로 들고 있다. 신어 중 이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이 ‘-각(角)’이다. ‘각’은 본래 독립적인 명사로 쓰였지만 특정 구문에서 단어 형성 구문의 일원으로 생산적으로 쓰이게 되었다. ‘각’은 ‘-각’의 형태로 사용될 때에 ‘~할 가능성’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본래 당구나 조준이 필요한 게임에서 ‘~할(하기에 적합한) 각을 재다’라는 말로 쓰였던 데에서 유래한 구문인데, 이 때의 ‘각’은 ‘각도’라는 본래의 뜻 그대로 쓰인 것으로 높은 합성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다 특정 게임 유저들 사이에서 ‘킬(kill)각’이라는 합성어가 유행하게 되었는데, 이때의 ‘각’은 반드시 각도를 재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상황이 가능한가’의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테면 전자의 상황에서는 ‘쓰리쿠션 각을 재다’ ‘각이 나오다’ 등의 문장 형태로만 쓰일 수 있었지만, ‘킬각’이라는 합성어가 등장하면서부터는 ‘킬각이다’ 등의 쓰임이 가능해졌다.

특정 미세 구문의 높은 생산성과 더불어 구문을 구성하는 요소인 ‘각’이 추상적인 상황을 가리키는 말로 변하면서 ‘X각’ 형태의 어휘 구문은 유형 빈도가 높아지게 된다. ‘X를 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쓰인 ‘우승각, 지각각’뿐만 아니라 ‘X를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치킨각, 피자각’, 반대로 ‘X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고소각’등도 생겨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각’의 본래 어휘적 의미는 탈색되고 구문에 참여할 수 있는 단위는 확장된다. 결과적으로 ‘X각’ 도식의 높은 생산성은 ‘각(角)’의 접사화를 유도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견인한 어휘 구문이 바로 ‘킬각(kill角)’이다.

최근의 신어는 검색 엔진 등을 통해 미세-구문의 출현 시점을 비교적 가깝게 특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문문법의 구문 발전 이론을 증명하기에 적합하다. 이를테면 동사 어간이 직접 합성어 형성에 참여하는 비통사적 구문 중에서는 동사 ‘먹-’에 의한 것이 많다. 비교적 이른 시기에 나타난 ‘먹거리’를 비롯하여 문화적인 유행과 함께 큰 생산성을 획득한 ‘먹방’에 힘입어 ‘먹튀, 부먹, 짹먹’ 등의 새로운 미세-구문이 등장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먹-’이 참여하는 어휘 구문은 생산성이 높는데, ‘먹남매, 먹선수, 먹요정’ 등의 임시어들이 관찰된다.³⁾

‘먹선수, 먹요정’ 등의 단어를 ‘먹방’으로부터 유추되어 생성된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먹방’에 유추하여 ‘먹요정’이 만들어진다는 기제는 ‘먹-’이라는 미세 구문이 보다 더 생산적인 어휘 구문으로 구문화되었다는 것과 방법론적으로는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구문문법의 설명 방식은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구문 자체의 생산성을 언급했다는 점, 그리고 같은 단어에서 유추되었다고 설명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단어의 의미와 부류가 어떻게 해서

3) ‘먹-’을 사용한 신어들이 활발하게 만들어지는 데에는 2010년대에 들어 늘어난 ‘먹방’ 프로그램의 유행과 편성이 문화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방송 프로그램의 자막에서는 ‘먹-’이 붙은 임시어들을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다.

달라질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설명이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유추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단어가 필요한 상황에서 기존의 존재하는 단어의 형식을 빌림으로써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낸 것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기제라고 할 수 있다. 만일 ‘고소각’이 ‘킬각’에 유추되어 생겨난 것이라면 어째서 ‘고소를 할 가능성’이 아닌 ‘고소를 당할 가능성’으로 해석되는지 설명하기가 복잡해진다. 그러나 구문화에 의한 설명이라면 구문 자체의 의미가 변화되었음을 토대로 설명이 가능해진다.

충분한 맥락만 갖추어지면 어휘 구문의 의미는 유동적으로 변한다. ‘눴다’의 의미로 쓰이는 ‘눴다’가 그 예시이다.

(3) ㄱ. 과제와 시험, 텀플 때문에 눴고 지쳐버린 대학생 종강이.

ㄴ. 일어나서 출근하고 퇴근했는데 잘 시간이야... 눴았어...

ㄷ. 이 분 왜 이렇게 눴았어?

‘눴다’는 본래 물건의 상태를 표현하는 데에 쓰이는 단어이고, 사람에게 쓰이지 못하는 단어였지만 특정 커뮤니티 내에서 ‘눴다고 하기에는 너무 젊고, 젊다고 하기에는 너무 피곤하다’라는 심정을 표현하기 위해 ‘눴다’를 사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그것이 많은 공감을 얻어 널리 쓰이게 되면서 ‘눴다’의 작은말처럼 기능하게 되었다.

4. 절과 구의 구문화

이 절에서 살펴볼 구문화의 예는 3절에서 살펴볼 단어 크기의 구문 생성과 원칙적으로는 다르지 않다. 다만 생성되는 구문의 크기가 단어 이상의 단위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기존에는 이들을 ‘관용어’나 ‘숙어’ 등의 이름으로 불러 왔다. ‘spill the beans, all of a sudden, a lot of’와 같은 관용어들이 구 단위에서 일어난 구문화의 사례가 될 것이고, 구성 요소의 자리가 유동적인 빈칸으로 나타나는 절의 형태로 제시되는 구문도 있다. 구문문법을 다룬 영어의 논저에서 자주 언급되는 ‘what’s X doing Y’(X가 왜 X에 있어?) 구문이나 ‘X be lucky to Y’(만약 Y하게 된다면, X가 매우 행운이다) 등이 있다.

국어에도 이러한 구문들이 존재한다. 전후민(2013)에서는 영어의 ‘A let alone B’(A는 물론이고 B도 하지 못한다) 구문과 국어의 ‘커녕’ 구문이 대응한다고 보고 ‘커녕’이 쓰인 문장을 구문으로서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본 절에서는 하나의 어휘처럼 독립된 의미와 형식을 가진 구나 절이 논의의 대상이 될 것이다.

미세-구문 단위의 어휘 구문화에서와 같이 절과 구의 어휘적 구문화에서도 특정한 맥락이 요구된다. 일상적인 자유 표현으로 쓰이던 단일 구문이 널리 쓰이면서 의미가 일반화되거나, 기존에 존재하던 제약을 넘어선 표현으로 쓰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 중에서도 그 맥락을 추적하기 쉬운 예시로 ‘스노클론’이 있다. Glen whitman은 ‘Language log’에 대해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진부한 표현들을 변형해서 등장하는 일련의 관용어구의 집합에 스노클론(snowclone)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러테면 “Green is the new black(녹색이 새로운 기준(black)이다)”라는 책의 제목이 인기를 끌어 일종의 클리셰가 되면서, 해당 문구의 ‘green’을 다른 색채어로 바꾸는 변형이 일어났다. 이러한 변형 중 유명한 것은 드라마 시리즈의 제목 ‘Orange is the new black’일 것이다. 변형이 더 진행되면서 ‘green’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명사들은 색채어라는 범주를 넘어서 ‘Trust is the new black’과 같이 일반 명사로 확장된다. 이때 ‘X is the new

black'이라는 틀이 유지되는 이상 '~이 새로운 기준이다'라는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존에 유행하던 진부한 문구에서 특정 요소를 변형시키는 방식으로 생성되는 일련의 문장들을 '스노클론'이라고 이름붙인 것이다.

스노클론은 속담, 제목, 인용구, 광고 카피 등에서 형성된다. 국어의 스노클론의 예시로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과학이다'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문구는 가구 회사의 선전 카피로 해당 제품의 기술력을 홍보하기 위한 화용적인 목적에 의해서 '침대는 과학'이라는 조합을 만들어낸 것인데, 이후 'X는 Y가 아니다, X는 과학이다'라는 틀만이 남아 다른 방식으로 변형되기 시작했다. 이는 더 축약되어 'X는 과학이다'로 줄어들기도 한다.

(4) ㄱ. 다이어트는 과학이다

ㄴ. 운동은 과학이다

ㄷ. ○○○(임금을 체불하는 직장명) 탈출은 과학이다

'침대는 과학이다'에서 '과학'의 의미는 해당 제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의미로 사용되었고, '다이어트, 운동'이 과학이라고 할 때에는 그 개념이 엄밀하거나 정확한 근거가 필요한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결국 'X는 과학이다'의 의미는 'X'의 성질에 높은 신뢰성 또는 근거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스노클론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탈출은 과학이다'와 같이 과학이라는 분야와 전혀 관계없는 개념에서 쓰인 예문에서는 '~하는 것이 매우 권장된다'라는 의미로까지 추상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스노클론처럼 기존에 존재하는 클리셰적인 틀이 따로 없는 경우에도 하나의 구문 자체가 생산성을 획득하며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 'X가 또' 'X가 (또) X하다'류의 구문이 있다. 'X가 또'는 어휘의 합성적인 의미 그대로 X가 어떠한 행위를 반복했다는 뜻인데, 'X가 또 X하다'의 구문을 형성하면 그 행위가 부정적이라는 화용적 맥락을 포함하게 된다. X의 자리에는 어떤 명사든 올 수 있지만 주로 사람의 이름이 온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5) ㄱ. 종희가 (또) 종희했다.

ㄴ. 보정이가 (또) 보정이었다.

ㄷ. ?종희가 엄청 종희한다.

ㄹ. *보정이가 잘 보정인다.

이 때의 '종희하다, 보정이다'는 '종희를 하다'나 '보정이를 하다'등의 개입이 불가능하다. 또한 '보정이'와 '보정이다' 사이에 부사의 개입도 자연스럽게 않다.⁴⁾ 즉 여기서의 '-하다'가 특정한 동사나 형용사를 파생했다기보다는 'X가 X하다'의 구문 전체가 'X가 X다운 행위를 반복해서 수행하다'라는 뜻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구문들은 빈도가 높아지고 관용적인 쓰임이 정착됨에 따라 축약을 겪기도 한다. 'X는 과학이다' 구문은 '과학이네'와 같이 '과학'이라는 한 단어만으로 '확실함'을 나타낼 수 있게 축약되기도 하고, 'X가 (또) X하다' 구문은 'X의 첫 번째 음절 + 또'(보또, 종또)의 2음절을 형성하거나 'X하다'와 같은 단일 용언 형태로 줄어든다.

4) 구문 자체가 행위의 반복을 나타내기 때문에 '엄청, 아주, 또, 계속'과 같이 반복을 나타내는 부사들의 결합은 비교적 허용되는 데 반해 '예쁘게, 잘, 빨리'와 같이 상태를 나타내는 부사들이 결합하면 구문의 의미가 성립하지 않고 어휘 그대로의 의미만이 남게 된다.

이와 같이 어떠한 문장이 높은 빈도를 가지고 정착하게 되면 그 문장은 하나의 도식이 되어 기능하게 된다. 높은 생산성은 통사적 제약도 뛰어넘을 수 있는데, 그 예로 ‘못 읽다’가 있다. 본래 부정부사 ‘못’은 ‘읽다’와 결합할 수 없다는 제약을 가지고 있다. 잃어버리는 행위가 능력 부정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의 등장과 함께 ‘못 잃어’라는 표현이 생성되기 시작했다.

- (6) ㄱ. 나 옹○우 못 잃어.
- ㄴ. 쏠쏠 2조 못 잃어...

‘못 잃어’의 대상이 되는 주어에는 본래 오디션 프로그램의 참가자, 즉 사람이 왔다. 매 방송 회차마다 경쟁을 통해 참가자를 하차시키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특성상, 탈락한 참가자의 팬인 시청자들이 그 참가자의 출연이 정지되면서 그를 볼 기회를 ‘잃게’ 되는 맥락에서(또한, 참가자의 입장에서는 데뷔의 기회를 ‘잃게’ 되는 맥락에서) 이러한 표현이 처음 발생하였다. 즉, 이 구문은 어휘의 의미 조합 그대로 잃어버리는 행위를 할 능력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참가자의 하차를 극도로 아쉬워하는 심정을 강조하는 의미를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X 못 잃어’라는 구문은 X의 범주가 ‘오디션 프로그램의 참가자’에서 음식, 사물 등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7) ㄱ. 추워서 룡패딩 못 잃어
- ㄴ. 요즘 마라탕 위생때문에 난리라고 해도 맛있어서 못 잃어.
- ㄷ. 고기 못 잃는 사람도 채식하는 법.
- ㄹ. 돈을 잃을지언정 자존심은 못 잃는 줄리아.

‘ 룡패딩, 마라탕, 고기, 자존심’에 ‘못 읽다’가 결합하는 것은 그것들을 매우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강조할 뿐이지 상실, 잃어버림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또한 ‘X 못 잃어’라는 고정된 어구가 반복되었던 초기에 비해 X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못 잃는’과 같이 다른 활용형이 나타나고 있다.

절과 구의 구문화가 반드시 어휘를 교체해 넣을 수 있는 틀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문장, 구 자체가 변형을 겪기도 한다.

- (8) ㄱ. 나 때는 말이야.
- ㄴ. 라떼는 말이야.
- ㄷ. Latte is horse.
- ㄹ. 라떼 끓인다.

인기 드라마의 등장인물이 ‘나 때는 말이야’라는 대사를 반복하면서 유명해진 문장이다. 이 문장은 ‘나 때’와 ‘라떼’의 음상적 유사성에 의한 변형(8ㄴ)을 겪고, ‘말(馬)’과 ‘말(言)’의 동음어 관계에 의한 변형(8ㄷ)을 겪었다. (8ㄴ)은 음료 광고의 카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8ㄷ)은 의미적으로 비문이지만, 이러한 맥락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8ㄱ)의 의미로 쓰인다. 문장 자체가 변형을 겪더라도 그 의미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8ㄹ)의 ‘라떼 끓인다’ 역시 (8ㄱ)과 같은 행위를 가리키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이러한 구문화가 유지되면 ‘라떼’라는 단어 하나가 (8

기)의 의미를 담당하도록 축약될 가능성이 높으나 아직까지는 문장의 형태를 유지하며 쓰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절과 구 단위의 구문들이 새로운 구문 또는 새로운 어휘 항목을 생성하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구와 절 자체가 구문으로 정의되는 것이 구문문법의 기본적인 태도이므로, 단어의 형태로 줄어들지 않은 채로 생산적으로 사용되는 구문들을 일종의 도식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구문문법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5. 결론

본고에서는 구문문법이라는 이론적 틀을 신어에 적용하여 신어에서 나타나는 여러 언어 현상들을 기술하였다. 2장에서는 구문문법의 기본적 가정과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였고, 국어의 구문문법 연구 성과에 대해서도 일별하였다. 구문문법은 기존 생성문법의 전통과는 달리 ‘구문’을 문법 기술의 기본 단위로 제시함으로써 형태론과 통사론 사이의 구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구문문법의 특징은 모든 구문이 도식성을 가지고 다른 구문의 생성을 유발한다고 기술하는 데 있다. 높은 생산성을 가진 단일 구문(어휘)은 해당 도식이 발달하는 데에 견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3·4장에서는 구문문법의 이론적 틀을 사용하여 최근 신어를 분석하였다. 미세-구문 단위의 생성과 확장 방식은 유사하나 그 크기에 따라서 어휘 구문과 절과 구 단위의 구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구문문법은 단어를 형성하는 도식의 발달과 구문 자체의 의미 변화를 설명하는 데에 강점이 있었다. 어휘 구문의 생성과 절과 구 단위의 구문 생성은 맥락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점, 하나의 도식이 형성되면 다른 구문의 생성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였다. 따라서 신어 연구에서 그동안 비교적 주목받지 않았던 단어 이상 단위의 언어 현상을 다루는 데에 구문문법이 적합하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구문문법이라는 방법론을 도입하여 신어의 여러 특성을 설명하는 데에 의의를 두었지만, 새로운 문법적 기술이 기존의 것들에 비해 어떠한 점에서 유용한지에 대해 충분히 고증하지는 못했다. 통계적인 사례의 보충도 시도하지 못했다. 이러한 과제는 후고로 미루고자 한다.

참고 문헌

- 김진웅(2019). 구문 개념의 정립을 위한 시론, 국어학 89, 313-336.
노명희(2019). 신어에 나타나는 약어의 특징과 통합적 혼성어, 국어학 91, 27-56.
노명희(2020). 한국어의 형태론적 재분석과 의미론적 재분석, 국어학 95, 33-64.
南基卓(2013). 新語 形成 過程과 再分析. 국어국문학 163, 5-38.
예선희(2015). 우리말 ‘격조사+다가’ 구문의 문법화, 현대문법연구 86, 31-46.
이수현(2007). 구문문법 연구:담화/장르로서의 구문-러시아어 일화(анекдоты)를 예로,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26, 323-353.
정연주 (2019). 국내 구문문법 연구의 구문 의미 관련 쟁점 검토. 한국어학 84, 135-159.
정해권(2013), , 한국어 태 범주의 연속체, 언어과학연구 67, 267-286.
정주리(2005). ‘가다’ 동사의 의미와 구문에 대한 구문문법적 접근, 한국어 의미학 17,

267-294.

- 정주리(2007). 통사의미론 연구의 현황과 전망, *우리말연구* 21, 105-134.
- 정병철(2007). 경험적 상관성에 기반한 동사 의미 확장, *한국어 의미학* 22, 209-236.
- 전후민(2013). ‘커녕’ 구문의 위계적 틀, *국어학* 68, 405-443.
- 한수정(2018). 통사 단위가 포함된 신어 연구, *반교어문연구* 49, 167-193.
- Croft, W.(2001), *Radical Construction Grammar: Syntactic Theory in Typological Perspectiv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illmore, Charles J. and Paul Kay(1993), *Construction Grammar*. Ms.U.C. Berkeley.
- Goldberg, A.(1995). *Constructions: A Construction Grammar Approach to Argument Structure*,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 Haspelmath. M & Sims. A. D.(2010), *Understanding Morphology*, Routledge. 오규환·김민국·정한대로·송재영 역, 역락.
- Traugott. E. C & Trousdale. G(2013), *Constructionalization and Constructional Chang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ag Ivan A, Hans C. Boas and Paul Kay(2012). Introducing sign-based construction Grammar, In Boas and Sga, eds, 1-29.